

소통 · 배려 · 신뢰 중시... 청렴 공기업 조성에 온 힘

청렴 공기업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LX공사 부안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이하 LX공사 부안지사, 지사장 이영식)가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소통과 배려·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부안지사는 고객만족, 청렴 윤리경영 등 직무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체육행사 활동, 간담회 등 청렴한 LX공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LX공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온 대한지적공사가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2015년 6월 4일 회사 명칭이 변경되어 새롭게 출발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정원 3,703명, 전국 12개 본부와 179개 지사 그리고 국토정보교육원과 공간정보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는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LX공사는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빅데이터체계 구축, 국가지점번호 검증,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조사, 관리하고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부안지사는 지적측량을 비롯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측량업무, 공간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약 1조3,000억을 투입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제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 해소와 토지가치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토지정보 서비스로 정확한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서

지적측량 · 공간정보업무 수행 주력 취약계층 위한 자원봉사에도 앞장

비스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부안지사에 부임한 이영식 지사장은 부안군민과 함께 하는 부안지사가 되기 위해 부안 마실 축제, 전북도민체전 등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및 기부금 기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사회적 책임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영식 지사장은 "LX공사 부안지사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 적극 추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및 행복·희망나눔측량,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지역민과 소통하며 국민들께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려고 온 정성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식 지사장은 전주시 효자동에서 태어나 이리농림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대한지적공사 고창지사에 첫발을 내디디고 군산지사 차장, 무주지사 차장, 부안지사 차장, 전주지사 차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를 거쳤으며 지역의 날 우수상을 비롯해 경영관리 우수유공으로 상장을 수차례 수상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영식 지사장



복지관 기부금전달



복지관 봉사활동



청렴캠페인



행복나눔측량



무료법률상담

장수 JANGSU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www.장수물.com

NAVER 장수물

장수물 MALL JANGSU WALL